

25.05.23.(금)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와 정책협약식 진행

오늘(5/23) 14: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정책협약식 진행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와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이하 노동자연대)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5만 보험설계사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골자로 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존중 가치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협약식은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민병덕 위원장이 참석했다. 노동자연대 측에서는 오상훈·오세중 공동의장과 보험설계사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특수고용 노동자 지위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4대 보험 적용·계약관계·업무환경 등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서에는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개인보험대리점의 산재·고용보험 확대 적용, 국회 및 금융위원회와의 소통채널 개설, 전속설계사에 대한 보험모집 외 업무강요 중단 등 5대 핵심과제가 명시됐다. 특히 일부 보험사가 카드상품 판매 등 본래 업무 이외 활동을 설계사에게 강제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민병덕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노동자”라며 “일할 때 일하고,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지 않을 때는 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1일 비정형 노동자와 이재명 후보 간 간담회가 있

있고,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 협약식에 담겼다.” 며 “금융위원회가 노동조합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험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소통 역할을 하겠다.” 고 밝혔다.

오상훈 공동의장은 “그동안 보험사 중심의 일방적인 위촉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설계사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뜻깊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언에 나선 삼성생명노조 이학섭 위원장, DB손해보험 영업가족협의회 강봉석 회장, 우체국 FC노조 안승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보험영업과 상관없는 카드 영업 등을 강요해 시간을 뺏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며 “이 같은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계약횟수, 계약시기에 따른 수수료 차등지급으로 불완전 판매가 조장되고 있다.”,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투쟁하고 있다.” 며 보험영업인 노동권 인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치권이 보험설계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국회입법과 정책실행에서 보험노동자와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갈 방침이다. 후보가 지난 간담회에서 직접 내용을 듣고 파악하고 있는 만큼, 소통을 강화하며 정책협약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 사진]

